

꿈꾸지 않으면

양희창 작사
장혜선 작곡

Fmaj7 Gm7 C7 Fmaj7 Gm7

꿈 꾸지 않 으면 사 는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 으로 없 는길 가려 네 사랑

Am Dm Gm7 C7 Am Dm Gm7

하 지 않 으면 사 는게 아니라고 설레 는 마음 으로 날선길 가려 하

C7 Fmaj7 Gm7 C7 Fmaj7

네 아 름 다운꿈 꾸며 사 랑하는 우리 아무 도가 지 않는 길

Gm7 C7 Am Dm Gm7 C7 Gm

가 는 우리 를 누구 도 꿈 - 꾸지 못 한 우리들의 세 상 만 들 - 어 가

C7 F /A Bb C7 F /A

네 배운 다는 건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 가르친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Bb C7 F /A Bb C7 F /A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 다는 건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 가르친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Bb C7 F Am Bb F Dm

희망을 노래하는 것 - 우린 알고 있 네 우린 알고 있 네 배운 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Gm7 C7 F

희 망을 노래하는 것

‘사랑’과 ‘자발성’의 제천간디학교

간디IN

창간호



사진 · 유태영 제천간디학교 2학년

제천간디학교

<http://gandhischool.org>



사진·장희숙 (제천간디학교 쌤)

가슴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더없는 후회가 남는 한해 였습니다...

04	여는 글	간디, 우리들이 사는 곳 양희창
06	주제가 있는 이야기	마법동자들과 함께 한 늦가을 산행 손현석
08		My Gandhi Life 이운
10		아~~ 간디 류귀애
12		북경 편지! 태영철
14		추억이 되어버린 '간디 생활' 김범린
15	동아리 한마당	일상다반사 김지은
16	간디학교 속으로	간디학교의 새로운 공간 안해지
18	인물탐방	친절한 수자씨 정현
20	기숙사 엿보기	우리학교에만 있다. 재미있는 기숙사 규칙들! 문혜영
22	학교 속으로	소백산 탐방기 정현
24		논문해방 장성규
25	내가 바라보는 간디	간디인의 무책임 '신발 문제' 이산하
26	교과 이야기	고교영어 문혜영
28	독서비평	진정한 자유인을 꿈꾸면서 - '교양' 을 읽고 이용애
30	CMS 후원회원	
31	후원인의 글	

간디, 우리들이 사는 곳

양희창 _ 간디학교장

“양 소장, 나도 술 한 잔 주라, 그 예수인가 하는 사람이 물로 술을 만들었다며, 사람 차별하나? 나는 와 안 주노?” 떼를 쓰는 아저씨를 달래서 겨우 쪽방으로 보내 놓고 나면 조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취객이 발로 뺨 문을칩니다. “아저씨는 또 와 그럽니까?” “헤헤, 조금만 걸치고 가면 안 되겠는 교? 내가 약간 수면제(소주)를 사 왔는데, 서로 아는 처지에 조금만 봐 주소.”

한참 IMF가 터져 중산층이 몰락할 때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매일 매일이 전쟁이었지요.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길거리로 쏟아진 멀쩡한 숙자(?)들을 위해 상담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무엇보다 무너져버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밤을 새가며 뛰어다녀 봤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소년 교육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시급히 대안교육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꿈 많은 청소년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술 드시며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학교라곤 가는 날보다 빼 먹는 날이 더 많았고 가난해서 등록금 못 낸다고, 공부 못한다고 맨 날 얻어맞

는 게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삶에서 한번도 칭찬 받아 본 적이 없는 가슴 아픈 상처만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학교, 지식보다는 지혜를, 경쟁보다는 사랑을 중하게 여기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어설피게 뛰어들 곳 이 바로 ‘간디’였고, 좀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구상하고 있던 저로서는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벌써 여섯 해를 넘기고 어느 덧 이 곳이 내 삶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청에서의 첫 해는 아이들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뜨지 않나 안달하며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별안간 교육청에서 비인가 중학교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지루한 관료들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고, 교장이라는 삶이 철학과 경영, 정치와 관계 만들기의 복잡한 인생살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안 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아이들의 눈빛, 든든한 부모님



들의 격려로 새로운 제천에서의 생활이 이어졌고, 또 다른 길을 가는 교사들과의 끈끈한 동지애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제천에서의 네 번째 해를 맞으면서 고민이라기보다는 깊은 성찰을 갖게 되는 것은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면서입니다.

교육과정도 만들어야 하고 기숙사도 지어야 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게 뭘까 내내 고심했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다시 저의 첫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아이들은 행복한가?'

조금은 자신이 없고 또 조금은 자신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진심이 통하고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 지혜를 중하게 여기는 학교, 부딪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아니야, 대안 교육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 지는 것 같고 쌤들도 지치기 시작하고, 이리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아닐까?' 대안적인 삶을 위한 교육은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고독하고 힘든 작업이라고 어차피 각오했지

만, 제천의 매서운 밤공기를 맞으며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부대끼며 흘러가는 것이 사는 것 아닐까, 허허로운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서로 투정하며 불평하는, 한 아이마다 작은 우주로 살아가기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보따리를 또 펼쳐야 하는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 애니어그램 2번, 남이 불행해하는 꼴을 잘못 보는 오지랖이 넓은 봉사형이지요.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려고 애쓰지만 아이들이 무기력해질 때마다, 쌤들이 짜푸리고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하는 염려에 머리끝이 뜨거워지고 덩달아 힘들어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장보다는 그냥 교사가 맞을 거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간디는 저에게 배움의 자리이며 진리를 묻게 하는 수도장이며, 또한 그토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뻐하게 하기도 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결코 좌절의 술잔을 들이키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위해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는 인생의 도장을 만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법동자들과 함께 한 늦가을 산행

손현석 _ 간디학교선생님

유난히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제천. 푸근하고 넉넉한 가을을 제대로 만나주지 못한 게 아쉬워 열 일 제쳐놓고(한가해서 제철 일도 없으면서 무슨) 깊어가는 가을 산을 찾아간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한 무더기의 아이들은 이미 새벽에 충주 PC방으로 직행했고 나머지는 기숙사에서 뒹굴거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먹거리로 미끼를 던진다. 순진한 뺨도, 종명, 영자가 입질을 한다. 그렇게 아이들 셋과 쌤 다섯이서 아침 10시에 교문을 나선다.

우리가 안길 산은 학교 바로 앞에 봉긋 솟아있는 이름하여 '앞산'. 우리는 차를 탈 필요도 없이 바로 걸어서 산으로 오른다. 일하고 계시는 동네 어른들께 밝은 인사를 건넨다. 마을을 지나 기숙사 터를 지나 밭길 사이를 걷는다. 잠시 덤불을 헤치고 나니 가파른 돌무더기 길이 나온다. 먹을 것을 찾아 마을 쪽으로 내려온 새끼 고라니 한 마리가 사람 소리에 놀라 산 위쪽으로 깡충 걸음으로 도망간다. 불과 30분 정도를 올라왔을 뿐인데 학교와 마을은 아득하게 보이고 왼쪽으로 검푸른 저수지가 더욱 소담하게 보이며 덕산과 용바위가 손에 잡힐 듯 한 눈에 들어온다. 아이들도 신기한 모양이다.

“야, 저기 운동장에 있는 애 누구 아니야?”

“덕산이 저렇게 멀었어? 저 파란 지붕이 어진이 집 맞지?”

인적이 드물어 산길도 흐릿해 거의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올라간다. 작은 나무들을 헤치고 왼쪽으로 돌아드니 낙엽송 숲이 나온다. 바늘처럼 길고 가는 잎들이 수북이 쌓여 마치 폭신한 솜이불 위를 걷는 듯하다. 잎을 간다고 하여 '잎갈나무', '이갈나무'로도 불리는 낙엽송은 소나무과의 침엽수이지만 가을이면 짙은 노란색의 황금바늘을 땅으로 떨군다. 잎을 떨어뜨리고 나니 30m이상 큰 키가 더욱 흰칠하고 시원하다.

여기서부터 우리 마법동자들의 이바구가 본격적으로 폭발한다. 무슨 노동요도 아니고 설새없이 떠드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산을 내려와서도 그치지 않는다.(밤에 잠들었을 때까지 환청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산을 오르다 주운 나무가지로 칼싸움을 하더니 더욱 요상하고 괴상한 모양의 나무를 주어 이름을 붙인다. 언월도 비슷한 나무는 마치 관우가 한 것처럼 허공을 가르고 2-3번 파리를 튼 나무는 회오리봉이라 하여 연신 주문을 외운다. 이어서 무슨 광선이 나오고 레이저 빔이 나오더니 결국 종명이가 좋아하는 마법천자문에서 비롯된 마법 대결이 본격적으로 불꽃을 튀긴다. '바

람 풍(風) 하고 장풍이 날라 가자 '돌 석(石)' 하면서 투석전이 펼쳐지고 '앉을 좌(坐)와 '작을 소(小)로 상대를 제압하더니 '클 태(太)로 에너지를 회복한다. 온갖 말도 안 되는 마법전의 결말은 결국 마법계의 초절정 고수 '죽을 사(死)' 한마디에 허망한 종말을 고하고 만다. 실제로 이 싸움을 지켜보던 모든 썸들도 순간 뒤로 넘어갔다.

숲 터널을 지나자 외로운 묘지가 하나 나타난다. 다리도 실 검 푸짐하게 싸온 주먹밥과 사과, 효소 등을 간식으로 먹었다. 이후 본격적인 길 만들기 시작된다. 뻑뻑하게 자란 키 작은 나무들을 헤치며 곧장 정상 방향이다. 왼쪽 절벽으로 내려다보니 이제 덕산 대신 도기가 눈에 들어오고 그 뒤로 장회와 멀리 금수산이 푸르게 보인다. 그렇게 4-5개의 작은 봉우리를 넘어서 드디어 앞산 정상에 세 시간 반 만에 도착한다(13:40). 이 앞산의 이름은 바로 '매두막'이다. 멀리서 보면 원두막처럼 아담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 하는데 무슨 산이나 봉이나 재가 아닌 두막이라는 이름이 왠지 정겹다. 더욱 재밌는 것은 높이가 1099.5m이다. 뭐든 올리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그까이까 50cm 올리면 1100m인데 웬 소수점이란 말인가? 우리 키를 더해 보라는 재밌는 의도가 있는 걸까? 아무튼 우리는 자기 키를 더한 눈 높이에서 사방을 둘러본다. 어깨와 어깨를 걸고 있는 수많은 산들의 모습이 지리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려오는 길은 참나무 낙엽으로 상당히 미끄럽다. 얼마 가지 않아 나타난 헬기장에서는 또 한바탕 마법 대결이 펼쳐지고 아이들과 1대 3으로 닭싸움도 한다. 더욱 많아진 마법봉들을 허리 옆에



차고 여전히 밝게 뒹구는 녀석들이 한없이 사랑스럽다.

네 시에 하산한 우리는 도기삼거리를 지나 학교로 천천히 걸어간다. 방금 올라갔다 내려온 매두막이 왼쪽에서 계속 따라온다. 다음에 또 찾아오라고... 겨울 잘 나라고...

아스팔트길을 만나니 아이들이 국토순례 얘기를 하면서 또 투덜거린다. 쌀쌀한 날씨에 내심 차를 기다렸는데 역시나 인심 좋은 트럭 뒷자리에 올라탄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 말없이 빙긋 웃는다. 여기서 그냥 헤어지면 말이 안 되지. 함께 한 이들의 우정과 의리를 더욱 다지기 위해 따뜻한 라면과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킨다. 크~아, 카~아 서로 죽인다고 난리다. 아니 그대로 죽고 싶다. 매두막아! 안녕(오뎅 끼어쓰까~). 추운 겨울 잘 지내. 새 봄이 오면 또 찾아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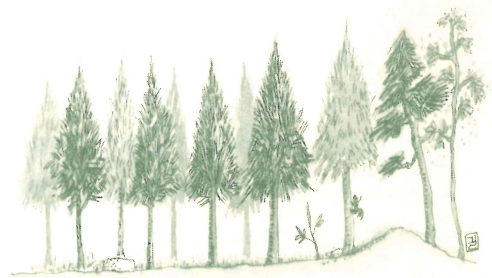


그림 · 임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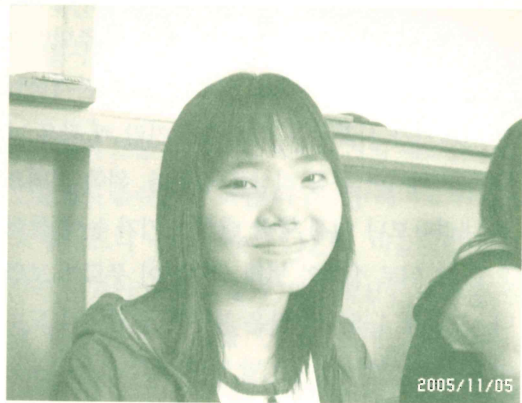
My Gandhi Life

이윤 _ 간디학교 2학년

2004년 3월 10일, 나는 내 생일을 5일 남겨둔 기대감과 간디학교에 입학한다는 사실에 기뻐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가지고 간디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내가 간디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정말 신기하다. 평소 엄마는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TV에 나오는 간디학교를 가끔씩 봐왔었다. 그러던 중 간디학교에 재학 중이던 오빠가 입학 1차 서류전형을 넣어보라는 얘기와 엄마아빠와 의논 끝에 한번 해 보겠다고 결심했다. 간디학교의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2차 추첨을 하게 되었다. 그때 엄마랑 같이 와서 봤는데 안 될 줄만 알았던 두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나와 함께 1차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도 2차에서 떨어져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 때부터 점차 간디학교에 들어가 내가 하게 될 일을 상상하게 되었다. 드디어 입학 날이 다가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묘한 기대감과 함께 입학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기숙사에서 적응이 안 되고 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 입학초기에는 조용한 성격이어서 언니오빠들과도 못 친해진 게 정말 아쉬웠다.

입학하고 별로 안 되서 '우리 걷는 걸음 평화의 씨앗이어라' 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화순례로



400km를 걸어보기도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주를 여는 시간'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 보기도 하고, 일반학교에서는 절대 못 해 볼법한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마니또, 옷 만들기 수업, 음식 만들기 수업 등)

여름만 되면 물놀이도 가고, 계절마다 하는 산딸기나 복숭아 같은 과일서리도 몰래몰래 해 보고, 학교교칙 위반도 해보고(무단매점, 식당 털기..) 그런 재미와 기쁨이 있어서 간디학교가 나에게 더 많은 추억을 안겨주는 것 같다. 한참 사춘기 시절에 이런 경험도 해 보는 게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아 내가 이렇기도 했었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될 테고 그렇기에 지금 이 간디학교에서의 매 순간마다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또 우리학교에서는 두 달에 한번은 집으로 가정 학습을 약 일주일간 가게 된다. 가정학습기간동안 길거리에서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너 왜 학교에 안 가니?”라고 물으면 말하기 귀찮고 복잡해지기도 해서 “할머니 생신 때문에 할머니한테 가요.”라고 한다던가 거짓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교로 와서 이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적이 있다며 다시 한번 ‘우리는 간디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학교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졸업하고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것은 아마도 동아리 활동일 것 같다. 나는 간디학교에서 ‘풀이라면’이라는 효소 동아리와 ‘GBS’라는 방송동아리와 역사를 알아가는 ‘역사사랑’ 과 밴드동아리인 ‘간락연’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다. 2학년이 되어서 1학년도

들어오고 하니 기숙사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진짜로 선배가 됐다는 느낌이 팍팍 들곤 한다. 작년 1학년 때는 3학년 논문발표를 보고 먼 훗날이라고 생각해서 잘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선배인 2학년이 되니 나도 논문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귀담아들어보니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잘 되었다. 3학년이 되려면 앞으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검정고시와 논문 때문에 빨리 흘러 갈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알차게 써서 남은 시간을 내 생애 가장 소중한 1년으로 기억되게 해야 할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 옛날, 떨리는 마음으로 간디학교에 첫발을 내딛은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언제나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GANDHI LIFE.



그림 · 남궁산

아~~ 간디

류귀애 _ 1학년 백동훈 어머니

얼마 전 학교도서관에 갔다가 노경환선생님과 잠시 도서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집으로 가는 동안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닳아 오르는 걸까? 선생님께서 왜 미안해 하셔야만 할까?

좀 더 당당하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까?

왜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떠안으려고 하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미안함으로 마음 아파해야 했을까?

올바른 신념으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계신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 날 난 나의 조급한 마음을 선생님께 들킨 것 같았다.

나의 조급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학교 시설은 재정이 뻥하니 어찌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이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서, 그 만족을 선생님들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비판과 관심의 눈으로...

한학기하고도 또 한 학기의 반을 지내면서 아이는 그 시기에 체험해야 할 일을 익히고 느끼느라 “행복” 그 자체로 만족해하는데, 내 속에는 6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대해 선생님들만의 책임인양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떨 때에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 나를 잡아 먹을 정도로 말이다.

오늘도 다짐한다.



아이들이 있는 그 곳은 정상인데,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해 보자'고, 이 산골짜기에 아이를 보내 놓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더 빨리 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자고, 설령,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자고, 설령, 조금 무디더라도 기다리자고,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말자고...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함께 자라야 할 것 같다.

간학연축제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면서 며칠을 아파했는지 모른다. 사진을 보면서 어떤 날은 숨 죽여 "으~으~"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입을 막고 울었고, 어떤 날은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뒤에 숨어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연들! 그 사연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간디의 어려움을 몸으로 함께 한 선생님

들과 선배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다. 세월이 지난 후 내 모습도 저렇게 비쳐질까?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1학년학부모로 그렇게 지냈다.

아이가 학교에 가까이 가면 차 문을 열고 코를 킁킁거리며 "음~ 간디냄새!"하면서 좋아라한다. 나도 제 각각의 색깔을 존중해 주는 간디냄새가 참! 좋다.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 <파랑이와 노랑이>에는 파랑이와 노랑이가 기뻐하며 서로 껴안으면 초록으로 변하는 그림이 있다. 어찌보면 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 개개인의 개성이 묻힐 수도 있을진대, 간디는 공동체 속에서도 조화롭게 개개인의 색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오늘이 아이들이 꿈꾸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북경 편지!

태영철 _ 간디학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식학기를 지내는 태영철입니다.

학교일로 현망(‘매우 바쁘다’는 중국말)하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혼자만 쏙 빠져나온 듯하여 미안한 마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안식학기가 좋기는 좋습니다. (호호호——)

‘쟁기질만 하는 사람은 밭을 볼 수 없다’던 어느 유명하신 분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간디 속에서의 10년, 이제 학교 밖에서 학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학기 초에는 ‘책(삶)에 헌신하는 한 학기되길...’이라는 구호를 보란 듯 저의 가슴에 새기고 뻗질나게 도서관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도서관 빛살 좋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펼쳤습니다. 오전엔 진리의 말씀과 대안교육·대안적인 삶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후엔 언어공부(영어, 중국어)와 수학공부를, 저녁엔 주로 가족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런 친구(전 간디학교 교사)의 초청으로 이곳 북경까지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까지 주렁주렁 달고서 말입니다.

안식학기 초반엔 위경련과 복통 비슷한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 앞에 서서 주절주절 수업하고 이리저리 부딪히

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엄청난 집중과 열량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만 봐도 입이 쉴룩쉴룩 무슨 말이든 해야만 할 것 같고, 칠판처럼 생긴 것만 보면 그 앞에다 뭔가를 써야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교사라 불리는 종족’은 ‘어디 있든지 아이들과 만나고 씨름하는 것 / 그것이 제일의 즐거움이 되고 / 그것이 제일의 노동이 되고 / 그것이 제일의 열량이 되고 / 그것이 제일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국제적인 행동반경에도 불구하고 안식동안 저를 가장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한 권의 책, 간디선생의 자서전입니다. 간디선생의 삶과 사상이 저의 심금을 울리고 또 울립니다. 20대에 만난 간디선생과 40을 눈앞에 두고 만난 간디선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분의 큰 가르침에 넙죽넙죽 엎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실험’이라 명명되어진 그 순수하고도 진실된 영혼의 행동들! 간디선생이 왜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의 스승이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간디학교라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간디학교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무한



한 영광임과 동시에 찬란한 명예와 의무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소박해지고 더욱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간디학교는 더 이상 간디학교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준엄한 꾸짖음의 말씀 말입니다. 아울러 간디선생이 오늘 다시 이 땅에 온다면 우리학교를 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간디적 대안이며, 어떠한 학교가 간디적 학교이며, 어떠한 사랑이 간디적 사랑이고 자발성인가?”

“악한 세상을 정결케 하는 다른 길은 없다. 언제나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분노를, 진리로 비진리를, 비폭력으로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절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자기 정화와 참회가 성공에 절반을 차지한다. 요란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진리라는 차분하고 말없는 실천을 통해서 영원하고 값진 결실이 얻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간디선생의 위의를 글로써 저는 이렇게 옮기고 싶습니다. “이 슬픈 교육현실을 바꾸는 다른 길은 없다. 사랑과 진리와 비폭력의 학교로 분노와 비진

리와 폭력성의 학교를 극복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간절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정화와 자기성찰을 통해 요란한 행동이나 구호에서 벗어나 오직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교육적 진리에 충실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어쩌면 간디 교육의 성공은 ‘뛰어난 교육과정도, 뛰어난 시설도, 뛰어난 교사도, 뛰어난 학생도, 뛰어난 학부모도 아닌 오직 사랑과 자발성의 차분하고 말없는 실천을 통해 영원하고 값진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있게 해 준 간디 가족들 모두와 북경의 김성만선생님, 그리고 항상 제천간디 소식을 반갑게 알려준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물론 그 감사에 보답하는 길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베푸는 길임을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눈 내린 제천의 캠퍼스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 북경에서 태영철

추억이 되어버린 '간디 생활'

김범린 _ 간디학교2005년 졸업생

추억이 되어버린 나의 간디생활, 졸업생이란 이름으로 다시 올 수 있음에 힘을 얻는다.

동생들과 아름다운 시간들, 선생님들과 잊지 못할 시간, 친구들과 행복했던 시간, 때론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 이 수많은 시간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진 곳에 허물없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됨을 감사한다.

동생들을 찾아오면,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많이 커버린 동생들을 보면서, 뭔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제천에 오면,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사주게 된다. 희한하게도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 줄 때에는 돈이 아깝지 않다. 오히려 맛있게 먹어주는 동생들에게 고맙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졸업 이후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습고, '이놈들도 졸업을 하면 달라질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우리 학년이 졸업하고 학교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분위기는 더 산만해진 것 같고(정신없이 바쁘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한두 가지로 아쉬운 것이 아니다.

한편으론 우리 학년도 6년제를 했으면 하는 미



장성에서 양원중 김범린

련을 버리지 못한다.

제천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제천에 있을 때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져 있는 이곳을 답답하게만 느껴 싫었는데, 졸업을 하고 이렇게 와보니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마냥 좋고 행복하다.

동생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찾아 올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나를 반겨 주는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다.

아이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6년제가 되어버린 지금 동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몰라도 된다. 하지만 졸업을 통해 학교에 대한 고마움, 학교에 대한 사랑을 한번만이라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일상다반사



김지은 _ 기자

작년 1학기 4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동아리가 탄생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끼리 신문으로 만들어 보면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올해 1학기, 학교 소식을 전할 소식지를 신문부에서 담당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본격적으로 신문부가 소식지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명칭 또한 '신문부'에서 '소식지 동아리 일상다반사'로 바뀌게 되었다.

아무래도 동아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소식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많았고 딱딱한 소식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었다.

또 담당 쌤과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회의도 전에 비해 많아졌고 우리끼리 만들 때는 일주일 만에 똑딱 만들어버렸던 것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여러 수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소식지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이 아닌 실제 가족사의 모습이나 학생들의 글을 많이 실어 좀 더 흥미있는 소식지를 만들자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서 재밌게 해나가고 있다.

끝으로 일상다반사 식구들을 소개해 보자면 회장 해지언니, 편집장 산하언니, 성규오빠, 기사담당의 혜영언니, 내(지은 이), 현이 그리고 일상다반사의 담당쌤이신 헤린쌤.

글을 쓸 때는 각 담당에 구애받지 않고 기사를 잘 쓰고 못 쓰고에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한개 이상의 기사를 맡아서 쓴다. 일상다반사가 쓰는 기사의 내용은 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재밌거나 시시콜콜한 일상의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모두 상관없이 쓰여 진다.

물론 일상다반사이외에도 많은 아들의 글이 소식지에 올라온다.

그 과정에서 원고 청탁 및 수거는 처음해보는 것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청탁된 원고가 예정된 기일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부탁한 사람이나 쓰는 사람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역시 쉬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원고 마감일에 맞춰 원고를 다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쓰기가 막막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쓴 글이 소식지로 완성되어 나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자랑스럽다. 자신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간디학교의 새로운 공간

안해지 _ 기자

간디 학교에 새로운 공간 두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버스를 개조한 쉼터이고, 다른 하나는 흙집입니다. 간디인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 앞으로 잘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 생긴 공간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우개(버스)

먼저 버스! 너무 오래 되어서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버스를 휴게실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용애쌤과 학교 꾸미기 프로젝트, 근로 장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간디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루어졌습니다. 버스 곳곳에서는 많은 간디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그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지은 자작시나 짧은 말귀들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스의 맨 뒤에 있는 유리창에는 몇몇의 간디인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간디인 뿐 아니라 우리 학교에 외국인 선생님



으로 오셨었던 바티스트와 요코도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특히 요코는 영어로 속담과 격언을 적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간디인들이 버스와 조금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버스 이름, 자작시 짓기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버스 이름 부문에서 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된 것은 일학년의 최민욱군이 지은 '지우개'. 간디인들이 버스에 와서 심신의 피로를 다 지워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작시 부문에서는 강주원(1학년) 군의 '꿈열린 버스'가 당선 되었으며 참여를 해준 전유림(2학년)양과 전동녕(1학년)군에게는 조그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쉼터 '지우개'의 소개를 마치면서 '지우개'가 정말 이름처럼 간디인들이 심신의 피로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햇살마루(흙집)

도서관 뒤쪽에 간디인들의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흙집은 지난 방학부터 짓기 시작했으며 얼마 전에는 상량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흙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잠시 흙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흙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

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터를 잡고 닦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돌을 나르고 기초를 쌓습니다. 다음에 벽을 쌓고, 창틀과 출입문을 넣습니다. 서까래를 짚고 구들을 놓고, 지붕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닥과 벽을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 환경 오염도 되지 않는 흙집이 완성됩니다. 흙집은 짓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흙집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흙집을 짓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우신 정규화쌤과의 인터뷰를 짧게나마 담아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규화쌤께서는 흙집에 대한 책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Q 흙집을 짓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처음에)행정실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어.

(라고 하셔서 '안돼요! 더 길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평소에 흙집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짓고 싶었어. 그러던 중 행정실에서 흙집이 필요하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짓게 되었어.

Q 흙집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사람과 흙은 항상 더불어 살아가지.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사람의 먹거리는 모두 흙에서 나. 이렇게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흙으로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아,

Q 흙집을 지으시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간디학교에서 나름대로 나만의 흙집을 짓고 싶었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지. 열심히 흙집을 지었어. 간디학교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아 흙집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준 수자쌤과 현석쌤, 재원이가 너무 고마워.

Q 흙집을 짓는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A 비가 심하게 오던 날, 벽이 무너졌어. 지붕부터 지어놔야 했는데 벽을 먼저 쌓아서 그런 일이어난거야. 이런 방식을 '조적식'이라고 하지. 흙집에는 습기가 많으면 좋지 않아.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간디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결혼을 해서 흙집이나 귀틀집 같이 자연을 소재로 하는 집을 짓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인터뷰를 위해 자신의 휴식시간을 기꺼이 내어 주신 규화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한 수자씨

정현 _ 기자

췌! 저를 따라오세요~ 간디학교의 오롯한 코스 모스길을 따라 정문을 통과하고 아담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서 교무실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획~ 둘러보니, 와~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기 창문 쪽 책상에 앉아 학생들과 웃으며 놀고 있는, 저 재미있는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네, 간디학교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원래 수학을 담당하셨던 태쌤이 안식학기를 맞아 2학기 수학시간은 수자쌤과 함께 하게 되어 태쌤이 없는 빈 자리를 채워주고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수자쌤과 함께 한 학교생활 풀어나가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고 기하학Ⅱ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르치고 있어 타칭 '피타고라스 학파'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옛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모두 채식 주의자였다고 합니다.)

학교 안 어디에서나 학생들과 툭툭 치며 장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도서관 뒤쪽으로 돌아가보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돌집(흙집) 짓기를 열심히 땀 흘리며 동참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기 학생들이 왜 깔깔대며 웃고 있을까요? 흠..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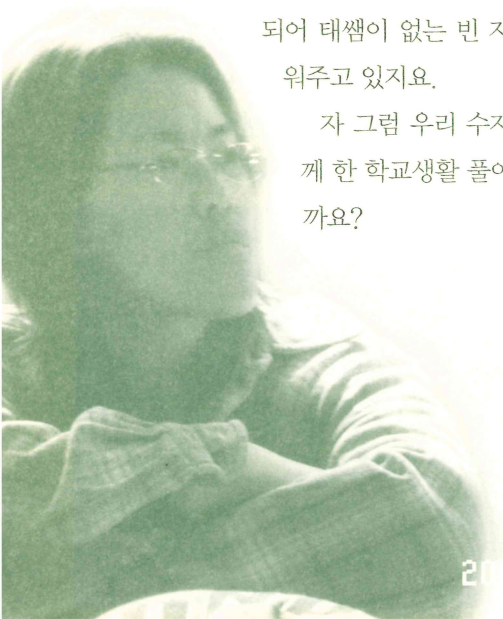
아니나다를까, 역시 수자쌤과 함께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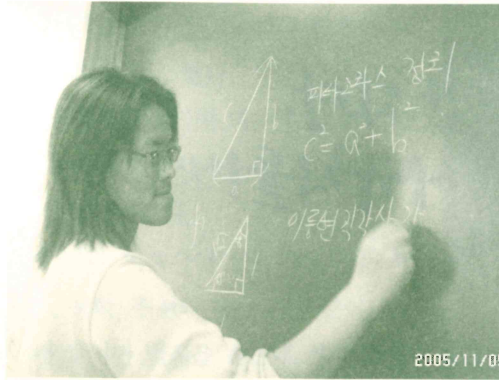
언제나 학생들을 배꼽 빠지게 해 주는 수자쌤만의 특유의 개그! 웃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수자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학년예 재학중인 김모군을 부르는 억양이 웃겨 학생들이 곧잘 따라하곤 합니다.

여기서 수자쌤의 비밀! 간디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싸이월드. 학생들로부터 무수한 일촌 신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한 수자쌤의 싸이. 도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자쌤의 싸이에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저곳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몰랐던 수자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어 좋았고 보는 내내 웃음을 띄게 하는 수자쌤만의 정이 스며들어있었습니다. 수자쌤의 음식솜씨와 사진솜씨를 엿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별로 찾아낸 것은 없기에 실망하며 다른 일촌은 없나? 하고 홈페이지의 일촌보기를 클릭하자, 영? 왜 일촌이 아무도 없지?

커다란 물음표만 남기게 된 수자쌤의 미니홈피 엿보기였습니다.

간디학교에 온 지 두달여,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 아주 긴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이 친근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이렇게 친해지기란 쉽지가 않죠.

얼굴에 한 가득 마음에 한 가득 웃음을 품고 사는 인기만점 자연인 수자쌤에게 궁금한 점 1가지

를 물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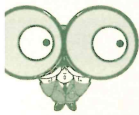
Q 왜 학생들의 일촌신청을 모조리 다 거절했나요?(그리고 왜 일촌이 없나요?)

A 에이~나는 미성년자랑은 일촌 안 맺는단니꺼!(웃음) 사실은, 일촌이 되면 사생활 노출이 심할 뿐 아니라 파도타기등 여러 요소로 인해서 많이 위험하다고 해요.

또, 일촌이라는 것이 친근하고 가족 같다는 뜻인데 일촌신청을 해서 파도타기가 되면 일촌순회 같이 기계적으로 돌게 되는 것 같아서 일촌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일촌의 의미라면 그 사람의 홈페이지 직접 찾아 헤매어서 올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남아 있던 일촌들도 다 지웠습니다. 내 싸이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학교에만 있다. 재미있는 기숙사규칙들!

문혜영 _ 기자

첫 번째 이야기 남기숙사 아침7시 퇴소, 밤10시 입소.

얼마 전 또 남자기숙사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다. 무려 2만 5천원이나 되는 돈이 사라진 것이다. 몇 번이나 긴급회의를 열고 돈을 가져간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돈을 가져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회의만 계속되는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며칠이 지나갔다. 결국 남학생들은 돈을 가져간 사람 찾는 것을 포기 하고, 모두의 잘못이라 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벌을 받기로 했다.

긴 회의를 거쳐 정해진 벌칙은 기숙사 아침7시 퇴소, 밤10시 입소. 이 얘기를 들은 여학생들과 쌤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들에게는 운동장을 뛰는 것보다, 반성문을 쓰는 것보다, 노작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하루 종일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 7시에 아침운동을 하러 나오면서 퇴소를 하고, 목욕이 끝나고 취침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모습은 안쓰럽고 심지어는 불쌍하기까지 했다.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다 챙겨서 내려오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졸린 눈을 비비며 잠옷 차림으로 내려오는 애들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벌칙을 적용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다시 긴급회의를 열어 벌칙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아래층에서는 목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끄러울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이 벌칙을 끝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난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점이 생기는 건 도대체 돈은 누가 가져간 것이며 언제까지 특별한 해결방안 없이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 인지 정말 답답하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학교에만 있다! 재미있는 기숙사 규칙들.

얼마 전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에서는 재미난 반란이 일어났다. 전에는 없었던 기발하고 다양한 규칙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2학기 들어 기숙사 내에서는 사소한 규칙들도 잘 지켜지지 않고 기숙사 전반의 생활이 흐트러진 모습이였다. 매주 열리는 기숙사회의 때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요즘 들어 기숙사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 래! 서!

더 이상 흐트러지는 기숙사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은 회의를 열어 대책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사감 쌤과 함께 머리를 열심히 굴러가며 의논한 결과,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에는 몇 가지 새로운 규칙들이 탄생하였다.

먼저 남자 기숙사에서는 기상, 입·퇴소, 청소, 묵학, 취침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X가 3개 쌓이면 벌칙을 받는데, 벌칙은 총 9가지를 만들어 그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9가지의 벌칙은 첫째, 팔굽혀펴기 60회(3번 설 수 있음). 둘째, 운동장 쉬지 않고 20바퀴 뛰기. 셋째, 운동장 쉬지 않고 걸어서 100바퀴. 넷째, 운동장 한 발로 쉬지 않고 3바퀴 뛰기. 다섯째, 외출·박 한 달 금지. 여섯째, 5일 동안 퇴소 8시 10분까지(원래는 8시 45분). 일곱째, 5일 동안 7시에 입소(원래는 3시 반) -전산실도 쓰지 못함. 여덟째, 반성문 글자 크기 10으로 두 쪽. 아홉째,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 외우기(시험)이다. 이렇게까지 9가지를 만든 이유는 만약 벌칙이 운동장 뛰기라고 정해졌을 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벌칙이 되어버리고,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벌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벌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학생들이 이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남자 기숙사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학생들은 여자 기숙사는 감옥이라며 살만한 데가 못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하.

그리고 신기하게도 양쪽 기숙사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규칙이 있는데, 일명 "FREE DAY"라는 규칙이다. 회의를 통해 한 달 동안 청소, 묵학, 취침의 각 분야에서 X가 없고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한 사람을 뽑아 원하는 날을 택해 하루 종일 기숙



사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청소는 물론 묵학과 취침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 규칙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아주 반응이 좋다. 특히 하루 종일 기숙사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살만한 혜택인 것이다.

이 외에도 남자 기숙사에는 몇 가지의 규칙이 더 만들어졌다. 방 사람들 모두가 일주일 동안 기상, 입·퇴소, 청소, 묵학, 취침의 모든 분야에서 X가 하나도 없으면 방 사람들 모두에게 휴지를 하나씩 주기로 하였고, 한 달 동안 다섯 가지 분야에서 X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모두를 남감쌤(남경록 사감 선생님, 이하 남감쌤)께서 직접 충주로 데리고 나가 점심까지 사 주시기로 결정 하였다. 정말 부러워할만한 규칙들이 아닌가.

사실 이 규칙들이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기숙사 생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달라진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금방 바뀔 수 있으랴. 모두가 반성하며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규칙인 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 믿는다.

소백산 탐방기

정현 _ 기자

주를 여는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게시판 앞에 별떼같이 모여들었다.

게시판에는 목요일에 떠나는 소백산행의 조배정이 붙어있었고 우리는 서로서로 '우리 조에는 누가 있나?' 궁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았다.

이미 한번 다녀왔던 소백산을 다시 올라가라니 죽을 지경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번 학기 들어 처음 가는 산행이라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았다. 많이 힘들고 추울 것이라고 얘기해주니 옷을 많이 껴입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학교를 나섰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런지 한결같이 졸린 눈이었지만 졸음도 산행의 설렘과 긴장을 이기진 못했다. 사실은 이번 산행이 비가 오는 바람에 연기 된 산행이었기 때문에 비 올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조끼리 간식을 나누고 그레이스 두 대와 대절버스 한 대에 나누어 출발하자 긴장은 조금씩 풀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기도 했다.

드디어 소백산에 도착해서 죽령대표소를 지나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목표는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 11.5km를 걸어야 한다. 2시간 가량 경사 진 시멘트 길만 걷다보니 저기 점같이 멀리만 보였던 기지국이 바로 코앞에 보였다. 모두들 환호하며 기지국을 지났지만 또 엄청나게 경사 진 길끝에 보이는 천문대를 보자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열심히 걸었지만 10월의 태양빛이 어찌나 강하던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났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던 건 소백산의 멋진 풍경들이었다. 소백산은 정말 엽서 같았다. 나무들과 하늘이 너무 잘 어울려서 꼭 풍경화를 보는 것 같아, 가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다. 또, 밑을 내려다보자 산봉우리들이 안개에 잠겨서 마치 섬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디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찍기에 바빴다. 힘들게 힘들게 천문대(연화봉)까지 도착해 물을 마시며 잠깐 쉬고, 앞서간 조원들과 만나서 제 1연화봉, 제 2연화봉을 향해 함께 걸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성규오빠 다리에 쥐가 나 준하가 파스 가지러 그 경사진 길을 멀~리 뛰어갔다다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재는 힘이 남아도나~' 라고 생각했던 사건도 있었고 정말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을 때 옆에서 같이 기다려줘 힘을 내서 다시 걸었던 일도 있었다.

어떤 조에서는 현기가 많이 힘들어하자 현기의 이름을 붙인 노래도 불러 주며 다 같이 무사히 잘 올라갔고, 또 펠릭스오빠는 신이 나서 막 올라가다가 너무 무리해서 무릎을 빼끗해, 내려올 때는 높은 연세에

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올
 라가신 현숙
 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릎
 보호대도 하고
 심지어 지팡이
 까지 짚으면서
 절뚝절뚝 내려
 갔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여러 해프닝을 거치면서 드디어 정상인 비로봉에 올랐다. 모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김밥을 꺼내는데 내 김밥이 다 터져있어서 정말 울고 싶었지만 조원들 께 조금 뺏어 먹고 생라면을 부숴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다. 힘들게 올라왔던 산행의 휴식이란 정말 꿀맛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밑에 보이는 산의 구름그림자를 보며 신기해하기도 했고 사진을 찍는다고 바빴던 우리들!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하산이 다가 왔다.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이어지는 길을 통해 어의곡 휴게소로 내려갔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이정표에 있었다! 다 지칠 만 하면 이정표가 나와서 “와~ 이제 1km밖에 안 남았어! 좀만 더 힘내자~”하는 소리에 힘을 내고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지칠 만 하면 또 이정표가 나와 우리에게 힘을 주곤 했다. 하지만 산행을 끝내자 산에 있는 이정표는 별로 믿을게 못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을 열심히 걸었는데 이정표가 나와서 보니까 2km밖에 걷지 않았다고 해서 분통터지기도 하고 다리는 아프고... 그래도 이정표가 있었기에 희망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던 것 같다. ‘2km면 어때!! 언젠가는 다 내려가겠지.’ 정말 다 내려 왔다. 게다가 우리는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까지 등정했다.

내려올 때는 마치 동막골을 연상시키는 들판이 펼쳐져 있어 정말 뒹굴고만 싶었지만 계속 내리막길만 이어져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털썩 주저 앉고만 싶었던 적도 많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내가 진짜 오늘안에 하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모두들 내려와서 만나니 얼굴들이 더 혈색도 좋아진 것 같았다. 무사히 내려온 내 자신이 뿌듯하고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좋았다.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모두들 피곤해하며 학교까지 곤히 잤다. 나는 저번에 답사를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기에 힘들었던 시멘트 길과 앞이 까마득해질 정도로 펼쳐져 있던 계단을 생각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또 산에 가기 바로 전날에 열이 나고 앓았기 때문에 답사 때처럼 건강하지가 못해 더 힘들 것 같았다. 하지만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조별로 이동했기 때문에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조원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걸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끝낸 힘들었던 산행길! 소백산 산행의 진짜 목적은 힘들어할 때 서로 도와주었던 협동심에 있지 않았나 싶다.

논문해방

장성규 _ 기자

논문. 제천간디학교에 입학한 이상 졸업장을 받으려면 꼭 거쳐야 하는 것. 중3들이 진로 다음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 그러나 재밌었다는 사람도 있었다(또 쓰라고 하면 절대 안 쓴다고 하지만). 중3의 평균수면시간을 줄이고, 진로와 겹쳐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논문이다.



논문을 간디학교 팜플렛에서 보면 선택과목에 있지만 졸업장을 받으려면 꼭 써야 되기 때문에 필수교과나 다름없다. 1학기 때 먼저 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평소에 자기가 관심있던 것을 고른다. 올해의 논문 주제는 상당히 다양했다. 이전의 논문주제처럼 간디학교의 문제, 의식 조사나 사회제도 문제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리폼, 뇌호흡, 동화각색, 생태건축등 제천간디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주제들도 많았다. 또, 주제를 정하고 나면 자료 수집을 하고 써야한다. 자료수집 방법은 애들마다 다른데,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지를 돌리거나,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완성시킨다. 이렇게 보면 매우 쉬워 보이지만 겁나게 귀찮다. 이것 때문에 잠 많이 자는 애들도 새벽 1~2시는 기본으로 넘겼고, 대부분은 새벽 3시까지 많이 쓰는 애들은 새벽 5시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늦게까지 쓰는 애들은 대부분 낮잠을 많이 자서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제로지만 말이다(몇몇 괴물들을 빼면). 그리고 논문을 다 쓰면 발표 때 쌤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볼 요약본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논문과 요약본과 프레젠테이션을 제출하고, 학생과 쌤들과 학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면 논문해방! ...이 아니라 통과와 재발표 판정이 나오고 통과된 학생들도 수정해야 할 것이 많다. 재발표 판정이 난 애들은 재발표날에 재발표를 하고 합격되면 논문해방! ...이 아니라 여전히 최종 수정을 거쳐야 완성본이 나오게 된다

끝으로 3년의 과정을 논문으로 제출하는데 있어서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가 든다.

간디인의 무책임 '신발문제'

이산하 _ 기자

지금 학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신발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신발 신고 난 후 현관에 내버려 두기, 남의 신발 함부로 신기, 잃어버린 신발 찾지 않기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전○○양의 경우 실외용 슬리퍼를 자신이 신으려고 하면 항상 신발장에서 사라져 항상 찾으러 헤매인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슬리퍼를 잃어버려 가정학습을 갈 때마다 슬리퍼를 사 온다고 한다. 백○○군의 경우 역시 신발이 사라져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관에는 주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신발들이 나뒹굴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살림터 쌤들은 회의를 거쳐 '주를 여는 시간'이나, '가족회의'를 통해 신발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으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버려진 신발들을 수거해 가고 싸인을 받고 찾아가는 방법을 시행해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쑥스러움 반, 웃음 반으로 자신의 신발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조금은 나아진 것 아닌가 생각 되었다. 그러나 한 두주가 지나면서 살림터로 찾아오는 학생들은 짜증나고 불쾌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신발을 남이 신고 가서 제자리에 정리하지 않아 살림터까지 신발이 가게 된 것이었다.

이외에도 신발을 찾으러 오지 않고 남의 신발을 빌려 신다가 결국 필요할 때만 다시 찾고 하는 등의 문제가 계



속 되고 있다. 한번은 신발이 어디론가 사라져 혹시 살림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환쌤을 따라 가보았다. 컨테이너에 옮겨져 있었는데 주인을 찾는 신발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신발을 찾는 학생에게 자기 신발을 찾고 나서 뒷마무리까지 부탁을 했는데 신발만 찾고 가버렸다고 한다. 경환쌤과 함께 신발 하나하나를 자루에 넣어보니 신발관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경환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에 대한 문제이다. 신발을 비롯해 우리의 물건 하나하나를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져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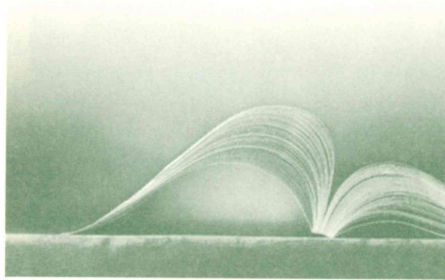
또 남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허락을 받고 사용 후에는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겠다.

경환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생활의 여러 모습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현재는 과정일 뿐이고 함께 노력하고 바꾸려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 역시 덧붙이셨다. 자칫하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신발문제 우리 모두 그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교영어

문혜영 _ 기자

우리 학교의 영어 수업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단계는 '기초영어'로 중학교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 2단계와 3단계는 '고급문법 및 독해 I, II'로 (줄여서 '고문 I, II'라고 부



른다. -말 그대로 고문이다), 기초영어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 필쌤과 헤린쌤께서는 고문1과 2는 엄연히 수준이 다른 수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가지 수업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은 다를 바가 없다며 수업을 하나로 합쳐도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고교영어'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배우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하니 학교에서 마지막 4단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은 단 네 명 뿐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교영어 수업이 상당히 어렵고,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고교영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수업이 절대 아니다.

그럼 이제 고교영어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

고교영어를 담당하시는 쌤은 지금 현재 3학년

의 답임을 담당하시는 오픈선 선생님(이하 필쌤)이시다. 그리고 고교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필쌤의 영어 수업과 3년을 함께 한 중3 학생 네 명이다. 사실 이 네 명의 학생들도 영어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3년을 함께 한 펠레야 떨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기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고교영어는 한 마디로 '필쌤 영어'다. 그만큼 필쌤 스타일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주로 배우는 교재 외에도 몇 가지 '필쌤 느낌이 나는' 팝송을 해석하기도 하고(얼마 전에는 'Redemption Song'과 'Every Breath You Take'를 해석했다) 요즘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 'I have a dream!'을 함께 해석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연설문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난 후, 특히 요즘 들어 필쌤께서는 고교영어 수업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신다. 학생들에게도 'I have a dream!'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면, 느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필쌤의 이런 말씀에 네 명의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했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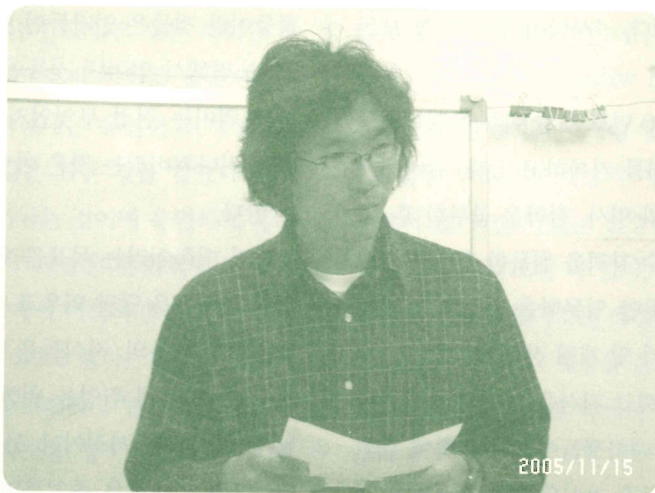
3년 동안이나 필쌤의 영어 수업을 들어 온 네 명의 학생들은 이제는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필쌤이 수업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 그 노하우는 바로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는 것이다. 음모론이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이나 증거가 부족할 때,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는 필쌤이 영어만큼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야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영어보다 음모론에 훨씬 열정을 보이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명의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싫을 때마다(상습적으로) 은근슬쩍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 필쌤은 하고 있던 수업을 중단하고 음모론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신다. 학생들의 정확한 의도도 모른 채 말이다. 지루한 영어 수업 보다는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네 명의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필쌤이 자신들의 의도를 모른 채 항상 음모론에 대한 열띤 강의를 해 주신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다. 가끔은 죄송할 때가 있긴 하지만 수업이 하기 싫은 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하하.

하지만 궁금한 건 도대체 언제까지 필쌤에게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인을 꿈꾸면서

- '교양' 을 읽고

이용애 _ 미술선생님



산다는 것 자체가 척박해지고 점점 자신을 돌아 볼 여유조차 없는 듯이 다 바쁘고 힘겹게 살고 있는 나라에서 뜬금없이 교양을 들먹이며 무려 700쪽이 넘는 한 권의 책을 읽으라고 소개한다는 것이 왠지 조심스럽고 무모해지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 진다. 몇 번의 망설임은 이 책이 중학생들에게는 조금, 혹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읽어도 거의 저버려서 황량해진 초겨울에 어디선가 코끝에 맴돌며 날아오는 낙엽 타는 내음이 정겹게 다가오는 이 계절에 따뜻한 공간에서 잃어버린 교양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보고 싶은 이들에게 독일의 디트리히 슈바니츠가 쓴 "교양"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Alles, was man wissen muss)이라는 부제를 달은 이 책은 2000 년도 초판 이후 독일에서도 지속적인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슈바니츠는 독일에서 영문학과 역사, 철학을 공부한 후, 영문학 박사학위와 교수 자격을 취득한 후 함부르크 대학에서 근 20년 동안 영문학을 가르쳤고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다가 몇 개월 전에 타계했다.

지식이 정말 중요하고 지식을 예민하게 흡수할 수 있는 중, 고생과 대학생들이 인류문화에 대한 지식을 접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

고 문명의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10여 과목이상의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에 짓눌려서 그 모든 것이 내 등에 가죽처럼 달라붙어 괴롭히는 짐짝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의무적으로 반드시 외우고 배워야 했던 그 많은 지식들.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자신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재미없고 지루한 사실들의 나열처럼 여겨져 절망하지 않았는지?

생명의 비밀을 배우면서도 경이감을 느끼지 못하고 역사를 배우면서 인류문명의 가치를 현실과 연결시킬 수 없었던 일방적이고 재미없게 보였던 수업시간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이란 것들은 인간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인지, 그것들이 현재에 갖는 의미는 진정 무엇인지 등등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단지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었던 지식들을 달달 외우고 대학에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대부분의 지식들은 머릿속에서 흘랑 날아가고 그 자리에 취업을 위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공서적이거나 전문지식만을 채워나간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지성인인양, 지식인

인척 하지만 대다수가 자신의 전문영역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지고 문외한이 되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은 아닌지?

교양은 무엇인가? 어려운 말을 구사하거나 외래 철학자나 음악가의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는 것이 교양인가? 교양은 그 자체로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교양이 없을 때는 금방 표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교양을 입에 올리면서 교양 있는 척 할 때 교양의 바닥이 보이는 그 무엇인지? 교양은 그 어떤 허세와도 거리가 멀다.

독일어판 원본 54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슈바니츠는 교양인이 되는 데 중요한 지식을 요약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교양에 방해되는 지식을 구분했다.

1부 “지식”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성 담론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3천년에 걸쳐 발전한 유럽문명의 핵심을 압축했다. 2부 “능력”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교양인이 되는 전략을 제시한다. 교양이란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라고.

슈바니츠에 의하면 어느 분야를 전문으로 삼든 교양인을 만드는 기본요소는 역사, 철학, 문학, 예술에 대한 이해이며, 교양은 모든 사회를 자기의 내면에 비추어봄으로써 사회를 결속시키는 도덕적 구속력을 생성해내는 유연하고 지성적인 정신이라고 한다. 교양은 모든 것을 알았다가 다시 잊었을 때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유연하게 훈련된 정신이라고 하면서 교양은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색하게 남의 눈에 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교양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인간의 상호이해를 즐겁게 해주는 의사소통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슈바니츠는 자칭 교양인이라는 교양숙물에 대한 점잖은 야유와 풍자 속에서 교양지식을 둘러싼 위압감 넘치는 철갑옷을 걷어내고, 서구문명의 방대한 내용을 인문학자 특유의 철학적, 문학적 향취가 가미된 문체로 하나의 풍성하고 맛깔스러운 밥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차려 놓았다. 현대적 어법으로 재구성된 구약은 독자에게 신선한 재미를 준다. “선악과나무”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이브에게 뱀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 자체가 반민주적인 악법이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지혜로워지려면 열매를 따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은 독일의 인문학자가 독일 지식인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양적 지식이 유럽문명의 뿌리에 그 표준을 삼고 있으며 동양에 대한 유럽인 특유의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어쩌면 이 책은 오히려 우리들이 미국주도의 세계지배질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책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이루어낸 문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근접할 것이라 생각한다.

까뮈가 말했던가, “지성 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평생 부조리한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반항인으로서 살다 간 까뮈는 진정한 자유를 위한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도 나는 아직도 온전치 못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반항을 위해서도, 온전치 못한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나를 둘러싼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을 꿈꾼다.

CMS후원회원

200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로 후원해 주신 금전들은 대부분 학교운영비(학생복지 및 학교시설)로 사용되었고, 일부이지만 대안교육연대 지원금과 홈스쿨네트워크 운영비, 타 대안학교 지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에 맞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한수섭유 강경선 강기갑 강덕수 강동우 강명우 강미정 강민택 강병임 강상진 강석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금 강영상 강용중 강윤주 강은정 강은택 강주원 강지혜 강창남 강창석 고동주 고수원 고지철 공민준 공치성 박용호 구경란 구자민 국정훈 권도오 권상대 권수경 권영미 권영숙 권영태 권춘현 권혁택 권혜숙 금상호 김주연 김갑돈 김갑유 김경민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환 김극준 김기만 김길화 김남규 김남균 김남수 김남식 김대부 김대현 김대현 김도현 김동섭 김란경 김명구 김명근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우 김미정 김민진 김병기 김병석 김보현 김봉주 김상덕 김생연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혜 김성희 김숙자 김순겸 김순옥 김승환 김시선 김영복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영희 김예동 김옥주 김 용 김용경 김용규 김용규 김용주 김용철 김용철 김용필 김용희 김윤기 김원경 김유라 김유신 김유태 김윤이 김윤정 김윤찬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인철 김일지 김재구 김재우 김정규 김정미 김정에 김정오 김종성 김중우 김중의 김지식 김지연 김지용 김진오 김평호 김학희 김현기 김현란 김현식 김현진 김혜란 김혜원 김혜은 김홍순 김홍일 김효진 김희교 김희균 김희정 남경혜 남경호 남궁원 남승록 남양숙 남용우 남혜진 노건호 노경수 노상규 노선영 노은희 노희석 라기호 라성호 라숙자 류병일 류영숙 마석훈 문성룡 문신호 문영미 문현주 민경주 민병식 민영기 박경미 박경현 박기석 박기홍 박미경 박미애 박복자 박봉규 박상진 박선희 박성열 박성용 박수정 박시홍 박영선 박영자 박영희 박용기 박윤태 박인옥 박재능 박재성 박정기 박정림 박정범 박정혜 박종국 박종숙 박종원 박진수 박진호 박창순 박채영 박철은 박현주 박현준 박현향 박형규 박혜리 박혜선 박홍식 방춘배 배정옥 배진우 배필늘 백명기 변기영 변문기 변영애 변윤수 변현정 부상준 빈준일 서미화 서석종 서예경 서인자 서정식 서진섭 성동제 성장현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재익 손현석 손혜숙 송미숙 송준섭 송하동 신란주 신부순 신선영 신승임 신영주 신운숙 신진철 신현덕 신현정 심계선 심예인 안수환 안수범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희종 양병만 양병원 양선희 양성자 양수연 양정숙 양혜동 양후남 엄도경 엄정미 여태전 연혜경 연계선 연순식 오강순 오경숙 오기숙 오길환 오병갑 오익문 오지혜 오태겸 오현옥 왕정환 왕종석 우기백 원영준 원정임 원현구 유경오 유덕선 유방훈 유상봉 유연열 유은미 유인수 유정훈 유준선 유한복 유향옥 육기엽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석한 윤숙경 윤은주 윤준영 윤태일 윤환식 이갑조 이강연 이강인 이강훈 이경란 이경희 이 곤 이광숙 이광일 이규홍 이기봉 이기하 이기현 이덕순 이도종 이동물 이명희 이무섭 이미경 이미경 이병순 이병은 이보완 이상옥 이상현 이상화 이상환 이상훈 이서영 이선애 이선영 이성구 이성록 이성에 이성호 이소안 이수규호 이수경 이수경 이수진 이순임 이승룡 이승연 이승옥 이승희 이신혜 이신희 이양환 이연상 이영미 이영준 이영호 이영희 이오순 이요훈 이용복 이원갑 이유진 이윤숙 이윤승 이윤희 이은신 이은영 이은주 이인숙 이재성 이정미 이정석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준용 이진석 이진숙 이진화 이춘식 이한진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형철 이혜림 이호진 이호창 이흥구 이희정 임명희 임병포 임영빈 임진희 임현주 임형택 장규식 장명숙 장명원 장명원 장진원 장동금 장현정 전미영 전상혁 전서연 전영복 전완기 전완기 전우현 전종철 전혜영 정난주 정다운 정도영 정명숙 정문자 정병태 정병희 정상용 정석현 정성옥 정영수 정영아 정영주 정영천 정영환 정우석 정이영 정이화 정재숙 정재윤 정종숙 정종태 정진수 정태균 정혜영 정현숙 정희도 정희영 정희정 조경숙 조경희 조규석 조동희 조만진 조명자 조미순 조봉석 조상희 조성숙 조성옥 조윤호 조주환 조창아 조철연 조혜정 조희정 주상영 주선태 지연철 지재원 진영진 진은주 진정란 진정에 차영순 차은경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귀중 최도연 최동덕 최문택 최미라 최미숙 최미애 최상운 최상호 최선희 최성철 최소정 최영준 최 용 최원봉 최은경 최은미 최인화 최재호 최재훈 최정숙 최정옥 최중선 최중현 최준석 최지영 최진영 최진옥 최혜만 최현학 최현희 최화영 하광명 하두철 하승렬 하영아 하주희 하태광 하태호 한광덕 한동열 한상철 한용택 한점숙 한 현 함선아 함제도 허성립 허영순 현은영 형임순 홍경순 홍병선 홍수연 홍윤숙 홍주영 홍희정 황국덕 황달남 황명숙 황영숙 황용덕 황지연 황호영

-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식을 못 받고 계시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후원인이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653-5791 담당 김윤하)
- 후원인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소식지에 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얘기를 담은 글을 보내주세요.
- 후원해 주신 물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어 총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간디교육공동체 사무국장 김윤하 -

간디학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동안 간디아이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얘기하는 것” 이 노랫말이 간디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더군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간디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교육의 현장에 절실히 와 닿는 표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입시지옥에서 헤어나질 못한 채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간디학교에서 우리사회와 교육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 위안을 느낍니다. 하루속히 간디의 졸업생들이 우리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주변을 변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간디학교가 지니고 있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공동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르고 저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더라도 이 세상은 또한 그물망처럼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질 않습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조화와 일치, 이것이야말로 간디학교가 함께 매진해나가는 공동체 교육의 방향인 것 같아 학교를 주체적으로 꾸려 가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간디학교가 실천하고 있는 교육이 대안교육이라는 말로 불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탈근대와 탈산업화를 지향하는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도나 실험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 선언적 행동이니까요.

박봉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주위의 온갖 유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자녀들을 맡기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선생님과 부모님을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향후 온갖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간디학교는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되도록 사심은 버리고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간디교육공동체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유념해야 할 책임의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산해경 제18권 해내경 머리글에 나오는 ‘俚人愛之,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 후원인 손봉국

야심차게 시작한 '제천간디학교 소식지 창간호 <간디IN>' 이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준비한 것인데 예비 1~2호보다는 좀더 낮게, 다르게 만들거라는 욕심 때문에 지금에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식지는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우리 일상 동반자 친구들(혜영, 성규, 해지, 산하, 지은, 현) 바쁘신 가운데도 걱정된 마음으로 꼼꼼히 챙겨주신 태진이 아버님, 글을 써달라는 부탁과 압박에도 무사히 마감날짜를 지켜주신 분 또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 사진 때문에 머리 썩힐 때 우리의 구세주처럼 나타난 태영이, 희숙쌤, 특히 사진을 사랑하는 열혈소년 태영이에게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화룡점정처럼 소식지의 마무리를 맡아주신 찬호아버님, 가끔 “소식지 다 되어가나요?” 라고 물으시면서 만면의 미소를 던져주신 윤하쌤 (좀 무서웠지요), 원고 교정과 진심어린 격려를 해주신 친절한 수자쌤 모두들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때론 아이들을 구박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 만들었지만 즐거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거내린-